

고유가·엔저 속 ‘가깝고 친근한데, 경제적이기까지’... 일본인 해외 여행지 1위는 한국

- '26년 7월 누적 방한객 1,28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21.3% 증가, 일본인 해외 여행객 4명 중 1명 이상(28%)이 한국 찾아
- 한일 항공망 확대, ‘케이-컬처’ 인기, 환율 등 호기로 일본 시장 방한 관광 수요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희영, 이하 문체부)는 올해 7월까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누적 1,2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56만 명) 대비 21.3%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주요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비중이 올해 7월 누적 28%(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 3.5%p)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케이-관광’에 대한 수요를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관광 소비도 꾸준히 늘어났다. 올해 7월까지의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12조 85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 1,515억 원) 대비 48.3% 증가했다.

‘26년 7월 현재 일본인 해외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28%) 나라는 한국

2026년 7월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일본인은 2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2만 명) 대비 1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여행을 떠난 일본인은 81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1만 명) 대비 4.1%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인의 한국 여행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일본인 해외여행객의 한국 방문 비중은 가장 많은 28%로, 미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주요 국가·지역보다 높았다.

<방한 관광 시장별 외래객 규모(단위 : 명)>

구분	'25년(1월~7월, A)	'26년(1월~7월, B)	증감률(B/A)
중국	3,128,988	3,988,430	+27.5%
대만	1,061,516	1,410,978	+32.9%
홍콩	354,865	416,888	+17.5%
일본	1,918,962	2,280,159	+18.8%
미주	1,128,841	1,274,577	+12.9%
구주	726,484	874,377	+20.4%
프랑스	97,813	115,502	+18.1%
독일	98,347	113,944	+15.9%
영국	98,042	121,686	+24.1%
그 외 (동남아 · 대양주 · 아프리카 등)	2,239,510	2,557,633	+14.2%
전체	10,559,166	12,803,042	+21.3%

* 출처: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일본인 해외여행객 및 국가·지역별 일본인 방문 규모>

구분	'25년(1월~7월, A)	'26년(1월~7월, B)	증감률(B/A)
일본인 해외여행객	7,814,431 (100.00%)	8,135,903 (100.00%)	+4.1%
한국	1,918,962 (24.56%)	2,280,159 (28.03%)	+18.8%
미국	1,028,171 (13.16%)	1,068,787 (13.14%)	+4.0%
대만	766,125 (9.80%)	761,056 (9.35%)	△0.7%
태국	575,284 (7.36%)	556,804 (6.84%)	△3.2%
베트남	추정 449,000 (5.75%)	추정 498,000 (6.12%)	+10.9%

*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미국국제무역청, 대만교통부관광서, 태국관광체육부, 베트남문화체육관광부

고유가 이후 한일 항공 공급 좌석 확대 상황 활용한 방한 관광 마케팅 추진

3월 이후 지속된 고유가로 항공사들이 기존 장거리 노선을 일본 등 근거리 위주로 재편한 것이 일본인 방한객 증가의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일 간 항공편의 주간 공급 좌석 수는 2026년 7월 현재 34만 9천 석 수준으로 2025년 말 대비 2.4% 늘었다. 문체부는 이를 활용해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공사)와 함께 신규취항 노선 홍보, 일본인 방한객을 위한 항공권 판촉, 한국 지방공항 입국 전세편 유치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국내 지방공항(김해·제주·청주 등)과 연계한 ‘첫 한국여행 캠페인’, ‘지금이야말로 부산’ 캠페인 등 지역관광 코스 제안, 여행상품 개발, 항공편 할인 등 혜택 제공, 파급력 높은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등을 아우르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7월까지 김해·제주·청주공항의 일본인 입국자는 각각 269,752명·22,048명·20,5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60%·93% 급증했다.

일상적 ‘케이-컬처’ 수요를 자연스럽게 한국 여행으로, 심리적 장벽 해소

일본에서 한국 식료품·미용·메이크업 등의 인기가 지속되는 점도 방한객 증가 요인이다.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위주로 한국 음식점·식료품점이 확산하고 있고, 일본 수입 화장품 중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025년 30.8% (1위)에서 2026년 1분기 33.5%(1위)까지 증가*했다.

* 출처: 일본수입화장품협회(日本輸入化粧品協会)

문체부와 공사는 일본인들이 생활밀착형 소비 경험을 선호하는 점에 착안해 분야별 일상 체험 위주의 관광콘텐츠 발굴 및 홍보에 힘써 왔다.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명동·성수 등 유명 관광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폭넓게 체험할 수 있는 ‘도장 찍기 대회(스탬프 랠리)’를 현지 유력 온라인여행사(OTA)인 라쿠텐트래블과 협력해 운영하고, 다이소 등 생활용품, 백화점 등 복합 쇼핑몰, 전통시장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SNS) 홍보도 강화했다. 한국의 미용, 의료에 관심이 높은 방한객을 겨냥해 10월(10. 26.~30.)에는 도쿄에서 ‘2026 케이-뷰티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관 25개사가 참여해 화장(메이크업) 체험, 전문가 강연, 의료·웰니스 기관 무료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고 여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9월에 일본의 ‘실버위크’ 연휴(9. 19.~23.) 등 대형 연휴와 연계, 후쿠오카공항 등 현지 주요 공항에서 한국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한국 여행 정보를 안내하고, 할인권 묶음 집(쿠폰북)을 배포하는 등 한국 지방공항으로의 입국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엔화 가치 하락(엔저)에 따른 여행비용 부담 완화 지원

연초 이후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일본인의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환율상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한국 여행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 엔화 평균환율('25년 12월→'26년 7월): (달러화) +4.2%, (위안화) +4.0%, (원화) +2.2%

문체부와 공사는 일본인 방한객의 한국 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방한객 구매력을 뒷받침하는 마케팅도 펼쳤다. 주요 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과 협력해 쇼핑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올해 7월까지 1만 장 배포했으며, 방한 중 신용카드·간편결제를 활용한 소비 시 캐시백 제공 및 포인트 적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장 상황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방한 관광 성장세 지속 유지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항공 공급 좌석 증가와 ‘케이-컬처’ 인기, 환율 변동 등의 여건에 따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방한 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체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으로 방한 관광 성장세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며 “9월에 열릴 ‘한일 관광 당국 간 협의회’도 올해 40주년을 맞이한 만큼 양국 우호 관계를 두텁게 하고, 관광교류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1~7월 방한 관광 동향

2. 2026년 1~7월 일본 시장 방한 관광 동향

담당 부서 <총괄> <일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진희 (044-203-2871)
		담당자	사무관	윤홍민 (044-203-2865)
		담당자	사무관	박동은 (044-203-2876)
담당 부서 <통계>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서비스팀	책임자	팀장	전승훈 (033-738-3321)
		담당자	전문위원	양대경 (033-738-3323)
담당 부서 <일본>	한국관광공사 일본팀	책임자	팀장	김영미 (033-738-3251)
		담당자	차장	박중경 (033-738-3257)
담당 부서 <빅데이터>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허브팀	책임자	팀장	이미숙 (033-738-3311)
		담당자	차장	이승희 (033-738-3312)

붙임1

2026년 1~7월 방한 관광 동향

□ 주요 시장별 방한객 규모

(단위 : 만 명, %)

구분	'26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규모	증감률
중국	42	50	50	57	56	65	78	399	+27.5
대만	17	18	19	19	19	22	26	141	+32.9
홍콩	4	5	6	7	6	7	8	42	+17.5
일본	23	23	48	30	36	35	33	228	+18.8
미주	10	11	21	24	21	22	20	127	+12.9
구주	6	7	16	18	15	12	14	87	+20.4
그 외	26	28	45	47	42	37	32	256	+14.2
합계	127	143	205	203	195	199	209	1,280	+21.3

* 증감률 : '25년 같은 기간 대비(이하 같음)

□ 방한 외래객 입국 경로

(단위 : 만 명, %)

구분		'26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규모	증감률
수도권	공항	94	102	147	142	130	135	139	889	+17.2
	항만	3	4	5	6	7	6	7	38	+78.6
지방	공항	23	27	36	36	36	40	42	238	+39.6
	항만	7	10	17	18	21	20	21	115	+9.0
합계		127	143	205	203	195	199	209	1,280	+21.3

□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액(온라인 소비액 포함)

(단위 : 억 원, %)

'26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액수	증감률
11,752	10,683	17,144	19,945	21,235	20,570	19,530	120,859	+48.3

* 관광분야 업종(숙박예약 · 요식배달 등) 추가, 행정구역 개편(전남광주통합) 등 반영 현행화

붙임2

2026년 1~7월 일본 시장 방한 관광 동향

□ 월별 일본인 해외여행객 규모

(단위 : 만 명)

연도	월	일본인 해외여행객(A)	방한객(B)	비중(B/A)
2025	1	91.2	17.5	19.2%
	2	118.1	22.4	19.0%
	3	142.3	38.3	26.9%
	4	96.1	25.8	26.8%
	5	107.7	29.2	27.1%
	6	105.4	28.7	27.2%
	7	120.5	30.0	24.9%
	8	164.8	37.9	23.0%
	9	139.5	37.1	26.6%
	10	124.4	31.7	25.5%
	11	133.0	36.3	27.3%
	12	130.1	30.5	23.4%
		1,473.2	365.3	24.8%
2026	1	107.3	22.5	21.0%
	2	109.3	23.3	21.3%
	3	151.9	48.2	31.7%
	4	104.2	30.4	29.2%
	5	112.7	35.8	31.7%
	6	109.0	34.8	31.9%
	7	119.1	33.0	27.7%
		813.6	228.0	28.0%

□ 한 · 일 항공편 운항현황

구분	'25년 12월	'26년 7월	증감률
노선 수(개)	61	57	△4 (△6.6%)
주간(weekly) 좌석공급(석)	340,441	348,751	+8,310 (+2.4%)
주간(weekly) 운항횟수(회)	1,647	1,677	+30 (+1.8%)

□ 주요국 화폐 대비 엔화 환율

* 증감률이 클수록 엔화가치 하락폭 확대

구분	'25년 12월	'26년 7월	증감률
미국 달러(1\$당)	155.9	162.5	+4.2%
중국 위안(1¥당)	22.4	23.3	+4.0%
한국 원(1,000원당)	106.2	108.5	+2.2%